

大巡聖蹟圖解要覽

머 리 말

구천^{九天} 대원^{大元} 조화^{造化} 주신^{主神}이신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 대권을^{大權} 주재^{主宰}하시고, 천하^{天下}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인세^{人世}에 대강^{大降}하사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天地} 도수^{度數}를 정리^{整理}하시고, 후천^{後天}의 무궁^{無窮}한 선경^{仙境}의 운로^{運路}를 열어 지상^{地上} 천국^{天國}을 건설^{建設}하고,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神明}과 재겁^{災劫}에 빠진 세계^{世界} 창생^{創生}을 널리 건지^{健濟}시려고, 순회^{巡廻} 주유^{周遊}하시며 四十년간에 걸쳐 행하신 삼계^{三界} 공사^{公事}중에서 선택^{選擇}한 구절^{句節}을 요약 ^{요약}해서 성화^{聖化}로 본부^{本部} 본전^{本殿} 회관^{會館} 및 더러는 지방 회관^{會館}에도 모셔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도해^{圖解}한 책자이다。

차례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〇
강 ^降 세 ^世 와 유 ^幼 년 ^年 시 ^時 절 ^節	광 ^匡 구 ^救 천 ^天 하 ^下	삼 ^三 계 ^界 대 ^大 권 ^權	권 ^權 제 ^濟 생 ^生 능 ^能	제 ^濟 생 ^生 원 ^冤	해 ^解 상 ^相 생 ^生 운 ^運	상 ^相 생 ^生 원 ^冤	교 ^教 생 ^生 원 ^冤	개 ^開 벽 ^闢 과 ^科 선 ^仙 경 ^境	창 ^創 도 ^道
.....
3	4	6	8	10	12	14	15	17	19

一、강^降세^世와 유^幼년^年시^時절^節

- 1 상^{上帝}제^帝께서는 천^{天地}지^地신^{神明}명^明(신^神성^聖·불^佛·보^보살^薩)들이 모여서 삼^{三界}계의 혼^混란^亂과 신^神·인^人의 겁^劫애^厄을 구^九천^天에 호^呼소^所하^하므로 서^서양^洋 대^大법^法국^國 천^天계^界탑^塔에 내^내려^려오^오셔서 천^天하^下를 대^大순^巡하시^시다가,
- 2 전^全북^北 모^母악^岳산^山 금^金산^山사^寺 미^彌륜^輪금^金보^佛에 임^臨하시^시여 三^三十^十년^年을 계^計셨^다.
- 3 전^全라^羅도^道 고^古부^阜군^郡 우^優덕^德면^面 객^客망^望리^里 강^姜씨^氏 가^家문^門에서 어^어느^느날^日 권^權씨^氏 부^夫인^人의 꿈^夢에 하^하늘^天이 남^南북^北으로 갈^갈라^라지^지며 큰 불^佛덩^登이 가^가 몸^身을 덮^덮으^으면서 천^天지가 밝 ^밝아 지^지더니,
- 4 그 뒤^뒤에 태^태기^기가 있^있어 열 ^열석^石달^日만^만인 서^서기 一^一八^八七^七一^一년(辛^辛未) 九^九月 十^十九^九日에 선^仙녀^女들의 시^詩위^位 아^아래 상^上제^帝께서 인^人간^間의 모^모습^習을 밋 ^밋어서 강^降세^世하^하셨^다.
- 5 상^上제^帝께서는 어^어려^려서 부^부터 호^好생^生의 덕^德이 많 ^많으^으시^시어 나^나무 심^心기^氣를 즐 ^즐기^기시^시고,
- 6 미^微세^細한 곤 ^곤충^蟲도 위^위기^氣에서 구 ^구하^하시^시곤 하^하셨^다.
- 7 상^上제^帝께서 칠^칠세^世시에 훈^訓장^長을 두^두고 글^글공^功부^부를 하^하시^시는데,
- 8 「하^하늘^天 따^따지^지」 두^두 글^글자^字를 따^따라 읽^읽으^으시^시고 두^두 글^글자^字에 천^天지 이^理치^致를 알^알았^았다 하^하시^시며

부친께 고하여 혼장을 돌려 보내시니라。

9 상제께서는 힘이 장사^{壯士}이신데다 장난을 좋아하셔서 맏돌 중쇠를 이빨로 물어 올 리기도 하시고、

10 여러 사람들이 허리를 밟고 올라서도 꿈쩍하지 않으셨다。

11 상제께서 어느날 서당에 놀러 가셨다가 혼장으로 부터 놀랄경자^{驚子} 운을^韻 받으시고、

12 그늘 지으시니 「땅을 멀리^{遠步} 밟으면 꺼질까 두렵고 소리를 크게^{大呼} 지르면 하늘이 놀랄까 두렵다」

一一、 匡球天下

1 상제께서 二十四세기 국정은^{國政} 날로 부패^{腐敗}되고 세속은^{世俗} 악화되니 고부^{古阜} 사람 전^全 봉준^{奉準} 이 악정에^{惡政} 분개하여 혁명을^{革命} 일으켜 세상은^世 흥동^{興動}되고 민중은^民 안정의 길을 잡지 못할 때、

2 상제께서 동학당이 겨울에 이르러 패멸^{敗滅} 될 것을 예시^{豫示}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망동^{妄動} 치말 것을 권유하시니 과연 눈을 시기에 이르러 관군에게 패멸^{敗滅}되니라。

3 상제께서는 을미년 봄에 사람들은 세상이 평정^{平定}되었다고 두승산^{斗升山}에서 시회를^{詩會} 여는데 참석하셨다가 어느 노인으로부터 서책을^{書冊} 받으셨으며、

4 정유년^{丁酉}에 이르러 광구천하^{匡救天下} 하실 뜻을 정하시고 세태^{世態} 인정을^{人情} 살피시기 위하여 유력^{遊歷}의 길에 오르시니 이르는 곳마다 신인^{神人}으로 칭송이 높으니라。

5 상제께서 三년동안 八도의 유력^{遊歷}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시루산에서 머리를 풀고 우시는 일도 있었고、

6 호든을^{虎遁} 하셔서 동리 나무꾼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으며、 진법주를^{眞法呪} 외우시고 오방신장^{五方神將}· 사십팔장^{四十八將}· 이십팔장^{二十八路} 공사를^{公事} 보셨다。

7 상제께서 오술공부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경무청^{警務廳}에서는 순검을^{巡檢} 보내어 불러려고 하였으나 샓갓을 쓰시고 앉아서 안개를 일으키시니 결을 지나가는 순검이 알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8 항상 샓갓을 쓰고 다니시니 사람들로부터 「강샓갓」이라는 별명도 들으셨다.

1 상제께서 어느날 외가로 행하시는데 주정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데、

10 난데없이 돌절구통이 그 사람의 머리를 덮으니 가시던 길을 그대로 행하시니라.

11 상제께서 하루는 김익찬을 데리고 세천을 지나시다 일본 포수가 기러기 떼에 총을 쏘려는 것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니 그의 총이 발사되지 않다가、

12 발을 옮기시자 기러기 떼가 날아가니 그제야 발사되니라.

三、삼계대권

1 상제께서 신축년 5월 중순에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四十九일간 불응불식의 수도로 천지대도를 열으시고、

2 종도 몇 사람을 데리고 대원사 골짜기에 나오시니 많은 산짐승들이 모여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언가 애원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3 갑진년 11월에 전주부에 민요가 일어나서 민중의 동요로 민심이 흉동되니 국가의 정책을 맡고 있는 김병욱이 그 민요의 진압할 길이 막연함을 상제께 아뢰니、

4 「내가 대신하여 진압하리라」하시고 눈비를 내려 일기를 흑한케 하셔서 그를 진압하시니라.

5 상제께서는 어느날 동곡 약방에서 이른 아침에 제비봉에 해가 반쯤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여러 종도들에게 「난국에 처하여 일월의 멈춤을 마음대로 못하고서야 어찌 정세에 뜻을 두랴」하시며 담배를 연거푸 피우시니 해가 떠오르지 못하다가、

6 담배대를 땅에 던지시니 그제야 해가 수장의 길이로 떠올랐다고 한다.

7 달밤에 길을 가실 때에 구름이 달을 가렸으면 달을 향하여 손을 오른편으로 저어서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고 달빛을 비치게 하셨으며、

8 목적이에 도달하시면 다시 달을 향하여 손을 원편으로 저으셔서 구름을 모아
원상대로 회복되게 하시니라。

9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양손으로 좌우 무릎을 치시며 「좋다 좋다」 하시니
제비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에 떨어지고,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
비봉에 떨어지니라。

10 이렇게 여러번 되풀이 된후에 「그만 하면 되었다」 하시고 양손을 멈추시니 번개
도 따라 그치는지라。

11 상제께서 풍·우·상·설 뇌전을 자유 자재로 일으키고 그치게 하셨으나 일정한
방법이 없었어 말씀으로도 또는 술잔을 들이 풍우를 일으키시고,

12 벽력표를 벽에 붙이시기도 하시고, 땅에다 묻기도 하시어 뇌전을 일으키시니
라。

四、 권능

1 상제께서 계시는 지붕에는 백설이 쌓일 때도 한점의 눈이 없고 맑은 기운이
벽공을 관통하였으며,

2 어디를 가시려면 동구밖에 八자형으로 구름이 기둥과 같이 섰다고 한다。

3 상제께서는 큰 비가 내리는 날 길들 가시면 그 길은 비가 내리지 않고,

4 더운 폭양에는 구름이 우산과 같이 가리워진다 하였다。

5 상제께서 공사간 무슨 일이고 행하시면 그 모형이 그대로 허공에 나타나니라。
어느날 가물치회를 잡수는데 허공에 그 모형이 그대로 나타나고,

6 하루는 여러 종도를 데리고 익산 이리를 지나시는데 나룻가에 이르니 뱃사공은
없고 배만 있어서 상제께서 친히 노를 저어 건너가시는데 그 모형이 그대로 허공
에 나타나니라。

7 상제께서 공문을 데리시고 길들 가시다가,

8 돌아보시며 「나의 형용이 관음장과 같으나」 하시니 공우는 놀라고 겁에 질려 어

찌 할 줄을 몰랐다 한다。

9 상제께서 출타하시면 여름에는 바람을 불러서 이슬을 떨어뜨리시고, 겨울에는 진기를 얼어 붙게하여 다니시며、

10 좁은 길에 수목이 없혀 많은 물이 계류를 이루어도 신발은 항상 정결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니라。

11 상제께서 김경학의 八세된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시며 「너의 부친이 들어오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꾸짖으시니、

12 병든 아이가 두려워하여 일어나니 곧 병이 완쾌되니라。 정확은 부친이란 말씀 을 이상히 여겨 생각하니 지난날 속례를 따라 금산사 미륵불에게 아들을 판 일이 있는데 상제께서 곧 미륵이신 까닭을 깨달으니라。

五、 濟 生

1 동곡에 사는 김갑진이 오래전부터 문둥병으로 얼굴이 붓고 눈썹이 빠졌는데 어느날 상제를 찾고 치료를 간청하니라。

2 상제께서 김갑진을 문밖에서 방쪽을 향해 서게 하셨다가 돌려보내시니 그 길로 그 병이 완쾌되니라。

3 동곡에서 김사명의 육세된 아들 성옥이 급병으로 죽은 것을 그의 어머니가 안고 와서 살려주시길 애원함으로、

4 상제께서 웃으시며 그 아이를 받아 안으시니 곧 살아나니라。

5 용두치에 김모란 앓은뱅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상제를 찾아와서 편히 걷게하여 달라고 애원하니라。

6 상제께서 그를 앞에 앉히고 담뱃대를 들면서 따라 일어서라 하시니 그 사람이 서서히 들어 올리는 담뱃대를 따라서 무릎과 다리를 점점 펴며 일어서거늘 광찬으로 하여금 종아리를 때리게 하시니 완쾌되어 걸어서 달아나니라。

7 경성 황교오의 관의 처가 소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애원하니라。

8 상제께서 그 맹인^{盲人}의 침실 정문에 이르사 양산대로 땅을 그어 돌리신 후에 흰 소
금을 먹이시니 그 눈이 황홀히 밝아지니라.

9 황^黃응중^{應鍾}의 아들이 병들어 위독하므로 응중이 청수^{淸水}를 떠놓고 상제 계신 곳을 향
하여 낮게 하여주시기를 발원^{發願}하니 그 병이 곧 나은지라.

10 다음날 동곡에 가서 상제를 뵈오니 「어제 구름을 타고 내려다 본즉 내가 손을
부비고 있었으니 어찌된 일이나」고 하시니라.

11 상제께서 동곡약방^{洞谷藥房}에서 밤나무로 약패^{藥牌}를 만드셔서 만국의원^{萬國醫院}이란 글을 쓰시고 박
공우^{公友}에게 주시며 「원평장터^{院坪}에 갔다 붙이고 오라」 하시면서 「경관이 물으면 뭐라
대답하겠느냐」 하시니 「만국의원을 설립하여 봉사, 앓은뱅이, 굶사 등 여러 가
지 병을 다 고친다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12 「너의 말이 옳도다」 하고 그 약패를 불사르시니라.

六、 해^解원^冤

1 반상^{班相}이란 양반^{兩班}과 상인^{常人}을 이르는 말인데 상인은 글공부도 못하게 하였고, 양반
들 앞에서는 할말도 못하며,

2 옳고 그르고 간에 복종하여야만 하는 것이 상인의 본분^{本分}으로 알고 생활해 왔던
것이 그 당시의 법제도였다.

3 상제께서 김형렬^{金衡烈}의 노비^{奴婢}지^池남식^{南植}에게 예를 갖추어 경어^{敬語}를 쓰시고,

4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경어를 쓰라고 하셨다.

5 적서^{嫡庶}란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이르는 말인데 서자는 아무리 재질^{才質}이 영특하여도 글들을 가
르치지 않았고,

6 조상의 제사에도 문밖 뜰밭에서 참례^{參禮}케 하였다.

7 상제께서 남존^{男尊}여비^{女卑}의 차별을 없애리라 하시며 몸소 여인^{女人}들에게 길을 비켜 주시
고,

8 여장군^{女將軍}이라 글을 쓰셔서 여인들의 기세^{氣勢}를 동^動하게 하셨다.

□ 상제께서는 김 형렬과 여러 종도들에게 앞으로는 반상의 차별과 적서의 차등과 남년의 존비를 없앤다 하셨다.

七、 상^相 생^生

1 조정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벼슬아치들은 당파싸움과 매관 매작에 혈안이 되어있고、

2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망에 순응케 하기 위하여 무력과 폭력을 가하고、

3 백성들은 사육에 사로잡혀 투쟁과 도둑질들 일삼고、

4 천후마저 고르지 못하여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었다.

5 상제께서 하루는 광찬에게 「네가 평상시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고 물으시니、

「촌양반이라 하나이다」고 아뢰니 「촌양반은 너를 어떻게 부르느냐」고 하시니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고 말씀드리니、

6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촌양반은 읍내 아전놈이라 하고 읍내 아전은 촌양반놈이라 하나니 이것이 다 차별의 불평이라 이제 너와 내가 화해하면 천하가 다 화해 하리라」 하시니라.

7 상제께서 김 형렬과 김 갑철에게 四十九일간 종이등 한 개씩과 짚신 한 켤레씩 만들게 하시니 종이등이 四十九개 짚신이 四十九 켤레가 되니라.

8 이것을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짚신으로 천하 사람에게 신계 하며 등으로 천하 사람의 어둠을 밝히리라」하시고 짚신은 파셨으며 등은 불사르시니라.

□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 세계가 탐욕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모략들과 차별 대우에서 생긴 원한과 불평등이 상극의 원인이 되었느니라.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은 상도를 이행은 천지를 바로잡아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을 이루기 위함이라」하셨다.

八、 교^教 운^運

1 상제께서 金 김경학의 집에서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먼저 천한 사람에게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무당 여섯 사람을 불러 그들의 관견을

벗기시고、

2 청수를 淸水 봉안하여 그곳을 향해 奉安 四배케 한 뒤 시천주를 세 번씩 읽게 하시니라。

3 상제께서 동곡양방에 종도 아홉 사람을 불러 앉히고 갑칠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 오게 하시니 대가 모두 열 마디인지라。

4 그중 한 마디를 자르셔서 「이 한 마디는 두목이라 두목은 왕래와 유력을 마음대로 할 것이며 남은 아홉 마디는 수교자의 수라」 하시니라。

5 상제께서 하루는 교운을 보리라 하시고 세숫물을 대하시면서 옆에 있는 종도들에게 「눈을 감고 보라」 하심으로、

6 물음을 들어나 보며 눈을 감으니 갑자기 큰 바다가 되어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가 굽이치는지라 본대로 아뢰니 「나의 일은 사두용미라」 고 하시니라。

7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대를 맞았을지라도、

8 너희들은 그 사람의 손을 만져주면서 위로하여 주라」 하셨다。

9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도를 잘 닦은 자는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도 흠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10 그렇지 못한 자는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 하시니라。

11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에게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하시고、

12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을 보라」 하셨느니라。

九、개벽과 선경

1 상제께서 임인년 壬寅 四월 어느날 김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라 하시

고、

2 말씀하시길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따라서 행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듦이야 하느니라」。

③ 「그것을 비유하건데 부모가 모은 재산을 얻어 쓰려면 쓸때마다 얼얼이 쳐다보
임과 같이、

④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얼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가 매우 어려우
니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느니라」。

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은 원한이 쌓이고 맺혀
상도를 잃고、

⑥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신명으로 하

여금 만고의 원한을 풀고、

⑦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⑧ 「하늘도 땅도 뜰어 고치고 사람의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남에게 착을 짓
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

⑨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⑩ 백성들은 원음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⑪ 지혜가 밝아져서 과거 현재 미래와 지방 세계를 통달하고、

⑫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고 하
셨다。

一〇、 창도

① 도주께서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배일사상가인 조씨 가문에서 을미년
十二月四日 탄생하시니 존호가 정산이시다。

② 정산께서 十五세시 그의 가문은 반일운동에 활약하다가 한일합방 단계에 이르러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기유년 四月二十八日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시니라。

③ 도주께서는 동지들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④ 도력으로 구국의 뜻을 정하시고 입산 수도중 정사년(二十三세) 二月十日 대순
진리에 감오 득도하셨다。

⑤ 강성상제의 계시에 따라 망명 九년만에 수로를 이용하여 귀국하신、

- 6 도주께서는 명산대천을 유력하시며 수도를 하시다가、
- 7 전북 정읍 井邑 馬洞 金 基天 的 집에 가서 상제의 누이동생 선들부인으로 부터 봉서 封書 를 받으시고、
- 8 전북 구태인 舊泰仁 道昌峴 에다 도장을 건립하시고 창도하시니 도세가 일가 월증 日加 月增 하던 중 일제당시 日帝 大東亞 전쟁말에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종교활동을 일단 중지하 시고、
- 9 도주께서는 고향인 회문리에다 회룡재를 건립하시고 간부 한 사람으로 도인과 道人 的 연락을 취하여 오시다가、
- 10 을유 乙酉 祖國光復 을 맞이하신 후、
- 11 도주께서는 경남 부산에다 도본부를 설치 하시고 종교활동을 부활해 오시던 중
- 12 서기 一九五八年(六四세) 四월에 유명으로 여러간부들 입회아래 도운영 道運營 전방을 現 都典 道前 에게 일임하시고 서거하셨다。

大巡聖蹟圖解要覽

發行所 大巡眞理會敎務部
住 所 京畿道驪州郡康川面伽倻里六五〇—二
電話 (〇三一) 八八二—六六二六番